

세계를 향한 한국출판문화의 전략기지

제50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한국관 운영 등 준비에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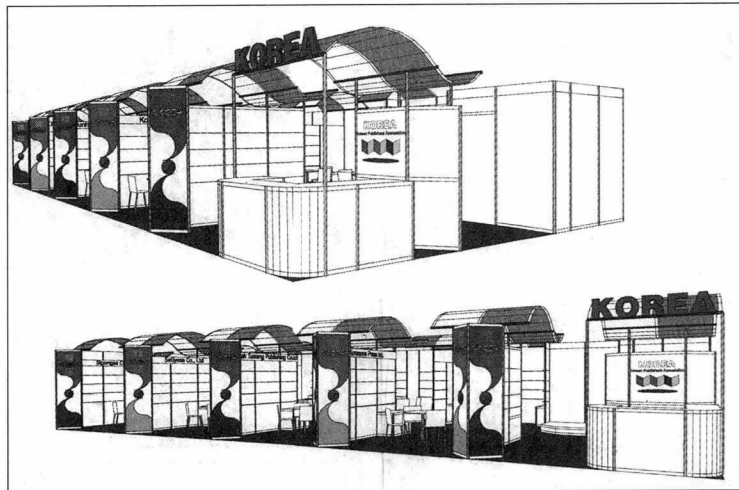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지구촌 북페어인 제50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오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독일 암마인에서 열린다. 독일출판인서적상협회에서 주최하고 스위스를 주제국가로 한 이번 전시회는 107국 9500여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 독자적으로 한국관을 운영한다. 지난해 금성출판사·대한국과서·문학동네·웅진출판·진명출판사 등 5사가 427종 560책을 전시한 데 이어 올해는 고려원·문학동네·영진출판사·한림출판사 등 16사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종합관(부스 길이 50m)에서 720종 1100책을 선보인다. 한국관의 전시부스 설치비용은 1㎡당 30만원으로 각 출판사는 1~6㎡의 전시공간을 사용한다.

출협은 이번 한국관 운영을 통해 참가사들의 국제출판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출판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도서의 저작권 수출을 위한 전략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품도서의 영문 초록을 담은 홍보용 책자 제작 ▲홍보와 저작권 상담 지원할 3명의 통역요원 배치 ▲우리아 대표 출판물전 ▲해외 번역·출판도서 특별 기획전 ▲국제 출판 전문가들을 초청한 한국관 리셉션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세계출판의 흐름을 점검할 수 있는 ▲국제출판협회(IPA) 연례 분과회의 ▲유럽연합 주최 콘드리넷(CondriNET) 회의 ▲국제 저작권 전문가 회의 ▲국제 유통전문가 회의 ▲국제 전자출판 연구소 주최 세미나 등 관련기관 국제회의에 참가해 출판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콘드리넷 회의에서는 전자정보사회에서 저작내용물(Content)이 전세계 네트워크 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한다.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한 16개 출판사들은 어려운 국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 출판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세계출판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내용을 담은 책을 엄선해 전시하며 홍보용 책자를 별도로 마련해 자사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마련할 한국관 부스 투시도.

의 출판철학과 주력상품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자사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저작권 수출 성과를 올리는 데도 역점을 둔다는 전략.

올해 처음으로 전시부스를 마련한 영진출판사(대표 이문철)는 기획팀장·홍보담당·저작권 상담요원 등 7명을 파견한다. 현재 컴퓨터 입문서, 전문가용 매뉴얼, 컴퓨터 그래픽 관련서 등 70여종의 전시용 책자를 선별하고 있다. 특히 기술서적이 문예물에 비해 외국어번역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동남아 지역으로의 저작권 수출에 힘쓸 예정이다.

96년부터 참가해온 문학동네(대표 강병선)는 5명을 파견해 한국적 정서를 담은 순수창작물을 선보인다. 지난해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수출했던 성과를 살려 올해도 《어른을 위한 동화》 시리즈, 《이철수 판화달력》 등의 저작권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림출판사(대표 함기만)는 참가사 중 전시규모가 가장 큰 6㎡공간에 한국학 관련 영문판과 국제교류재단·문화재보호재단·한국문예진흥원 등에서 발간한 한국 홍보용 도서 150여종을 전시한다. 부스관리와 저작권 상담은 독일지사의 직원과 읍저버 2인이 맡는다. 해외 지사의 개설상담과 함께 해외 주문에 의한 출판·판매에도 주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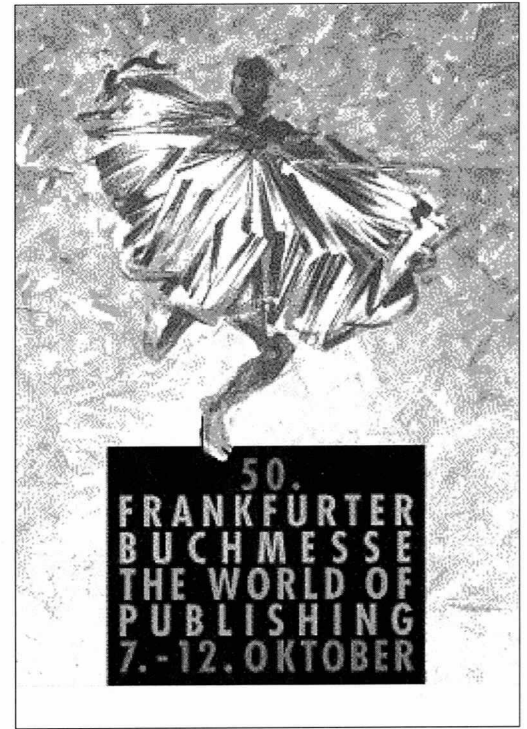
한림출판사와 마찬가지로 현암사(대표 조근태)도 직원을 따로 보내지 않고 현지 관리인에게 부스관리와 저작권 계약을 대행

시킨다. 저작권 수출이 가능한 책, 해외 교포 판매용 도서, 해외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책으로 나뉘 《뒷꾸리 이렇지의 하소연》·《조선시대 우리 옷》·《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100가지》 시리즈 등 20종을 진열한다.

그 외에 고려원·문학사상사·사계절·세계

사·시공사·예림당·지경사·침단·푸른숲·한신문화사·한울·해냄 등이 세계 출판인·관람객과 만난다.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저작물의 수출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출판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리라는 기대가 크다.

— 박천홍 기자



제50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의 공식 포스터.

중국출판, 세계로 발돋움

제7회 북경국제도서전람회 열려

오혜영 · 진명출판사 북경사무소 주임

제7회 북경국제도서전람회가 북경의 '국제무역전람센터'에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열렸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북경국제도서전람회는 1986년 제1회 도서전이 개최된 이래 출판무역·합작출판·판권 무역의 집합체로 대형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총 35개국 1500여 출판사가 10만여종의 책을 출판한 이번 도서전은 해외출판사 전람관, 전자출판물 전람관, 국가신문출판사 소속 출판사 전람관, 각 성(省)별 출판사 전람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이번 도서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서전 기간 중 실시했던 '도서주문화'였다.

'도서주문화'란 중국 출판계만의 독특한 형식인데 중국에서는 일년에 몇차례 각 성(省)의 출판사와 서적상들이 만나, 출판사는 자신들이 출판하고자 하는 책을 선전하고 서적상들은 자신이 원하는 책을 주문한다. 각 출판사들은 자사의 책을 더 많이 계약하기 위해 열띤 광고를 했다.

또 해외전시품에 대해서는 과학연구교육학회나 도서관에서 구입해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자출판물 전람관을 열어 해외전자출판물의 최신상품을 소개했으며, 판권무역센터를 열고 중국판권 무역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어 판권무역의 확대와 인지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